

노인의 자기초월 체험에 관한 연구*

김 순 이**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간호의 개념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시로 변화하는 상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신체적 정신적 차원을 포함한 총체적 건강 간호요구에 직면해 있는 노인 대상자에게 정상적인 노화과정과 그에 따라 수반되는 다양한 변화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노화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모두 하나의 형태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갖춘 신체적, 생물학적, 특성, 성격특성, 능력, 직업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가운데 장기간 생활해 가고 있으므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인간의 노화과정과 더불어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과 변인들이 함께 변화해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지적능력, 감각, 지각능력, 기억과정 및 학습능력, 그리고 성격특성 및 행동경향성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문제가 두드러진 심리학적 주제들이다.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정상적인 노화란 유기체가 정상적인 환경조건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변

화로 신체적인 면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인 면등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하나의 종합적 현상이므로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및 사회적 노화에서의 변화과정을 포함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노년기에는 특히 두가지 심리적 적응문제를 갖게 되는데 배우자와 친구, 친족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 상실과 정년퇴직, 경제적 곤란, 노인에 대한 경시, 천대등의 사회적 상실로 인한 환경적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과 개인의 성격적 특성, 신체적 질병, 신체 체격과 외모의 노화같은 객관적인 변화를 지각하는 주관적인 내부적 요인을 들고 있다(최영희, 1989)

이러한 외적 내적 변화에 따른 노년의 적응은 성공적인 노화의 관건이 되며 특히 심리적 적응은 변화하는 외부세계와 내부세계간의 조화를 이루고 노인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기 초월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Reed, 1991).

자기초월은 미래시대의 복지에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의 죽음에 과다하게 집착하는 것을 피하며 일생을 관대하고 이기심 없이 살수 있으며, 특히 인생철학은 죽음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죽음이란 삶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깨닫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최영희, 1989; Reed, 1991)).

이러한 자기초월은 노인간호의 학문적 목적과 밀접하

* 본 연구는 1999년도 해천대학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해천대학 간호과 부교수

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인이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존재의미를 확인하고 변화하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서 자기초월을 이루고 있는가를 발견하여 노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노인의 자기초월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생각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본 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밴매년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준하여 의미를 기술하였다(신경림 역, 1994).

1. 체험의 본질에 집중

체험의 본질에 집중을 위해서는 먼저 현상을 지향하고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며 가정과 선 이해의 설명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자의 생활세계에 대한 지향은 노인간호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노인들의 삶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생각, 느낌, 감정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행동의 동기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항상 숙고하고 있었다, 또한 오랜 기간 노인들의 모습, 늙음, 노화를 인생, 삶 그 자체. 실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실체로서의 우리의 부모님, 우리주위의 노인들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형성된 현상학적 질문은 “할머니(할아버지) 노인이 되면서 옛날, 지금 현재, 나중에도 자신의 몸,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밖의 생각과 경험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지금현재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신체변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것인가?이며 이 질문으로부터 면담을 이끌어내었다. 현상학적 연구에 있어서 문제는 상식적인 선이해, 추측, 가정 그리고 현존하는 과학적 지식체들 때문에 우리가 현상학적 물음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현상의 본질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를 명백히 함으로서 현상을 해석할 때 현상의 본질을 심사숙고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인간이 늙어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하고 본 연구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시작하였

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각각 개인의 체험을 그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독특성이 있으므로 자료수집이 완전해 질 때까지는 심층적인 문헌고찰을 삼갔다

2. 실존적 조사

1) 있는 그대로의 경험탐구

현상학적 탐구는 자아론적 출발점을 지니며 그것은 연구자 자신의 생활 경험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체험에 관해 기술할 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경험일 수 있는 한에서는 현상학자는 특정한 경험적 의미를 반성적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 개인이 경험한 자아초월의 현상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포기하려는 마음과 현실에 적응하여 나 자신을 억제하려는 한편 다른 사람과 제휴하려는 행동을 하고자 하였음을 알게되었다. 어쩌면 이것이 타협하려는 소극적 문제해결이라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인생이 성숙하여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체적인 변화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에 대한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관조해보기도 하며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이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는 사고의 틀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는데 이러한 양상이 적응양상의 하나인 자기초월의 현상이 아닐까하고 생각해 본다.

2) 어원의 추적

어원에 주목하다보면 말들이 본래 원천인 체험과 생생한 연관을 아직 갖고 있던 때의 본래적인 생활양식과 만나게 된다(신경림 역, 1994)

주요단어의 근원을 추적하기 위하여 노인, 노년기, 자기초월의 어원을 추적하였다

노인(老人) : 늙은사람(강민수 등, 1993)

늙은이(남영신, 1997)

노년기(老年期) : 늙은이가 되어지는 시기로 생리적인 모든 기능이 감쇄해지고 개성이 극히 주관화 되어 불안, 불만, 저항경향이 현저해짐(강민수 등, 1993)

초월(超越) : transcendence, 내재(內在)와 반대되는 말, 일반적으로 무엇을 넘어서 있는 것을 뜻한다 (김익달, 1973)

trans : 횡단, 관통, 초월, 변화, 건너편

transcendent : (경험, 이해력의 범위, 한계를)넘다. (우주, 물질적 존재 따위를)초월하다, 탁월한 사람, 탁월

자기초월(自己超越) : 미래세대의 복지에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의 죽음에 과다한 집착을 피하는 것으로 자기초월한 사람은 일생을 관대하고 이기심없이 살며 그들의 인생철학은 죽음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며 죽음이란 삶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깨닫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내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을 확장시키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초월을 이룬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는 동정심, 현명함, 수용, 창조, 개방, 결속, 직관, 영감, 평화, 연합되었다라고 한다(최영희, 1989; Reed, 1991)

3)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험적 기술 수집

현상학적 탐구에서 강조되는 것은 언제나 체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인간경험의 어떤 측면의 의미나 의의를 인간경험 전체의 맥락속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그에 관한 그들의 반응을 빌리는 것이다(신경립역, 1994). 그리하여 자기초월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탐구를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4)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는 65세 이상의 남녀노인으로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정에 거주하는 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van Manen의 현상학적 방법에서 대상자의 수는 진술의 포화(saturation), 즉 대상자에게 동일한 진술이 반복되어 새로운 주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2회정도 면접시 대상자에게 동일한 진술이 반복될 때 면접을 중지하였다. 8명의 노인은 노인정에서 만난 노인으로서 가정에서는 가사일을 돕고 노인정에 나와서는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면서 살고 있는 비교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었다. 여자노인 3명과 남자노인 5명으로 65세이상이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정확한 서술이므로 연구참여자의 체험담을 참여자 동의하에 녹음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2차에 걸쳐 시행하였다.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소요되었는데 1차 면담은 대상자의 관심분야와 일상생활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서로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면담에서는 면담 시작시 폭넓은 일반적인 개방형 질문인 “할머니(할아버지) 노인이되면서 옛날이나 지금 현재, 나중에도 몸, 다른 사람과의 관계등 그밖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관심은 어떤 것인가, 신체변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로 살아가면서 자기초월현상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알기 위해 일반적인 생활과 살아가면서 느끼고 체험하였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삶의 내면에 자기초월의 생각, 느낌,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연구자는 면담내용을 녹음하였고 글로 옮겨온 후 디스켓에 저장하고 복사된 것을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면담이 글로 옮겨진 것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하였다. 자료분석은 주제의 구조, 공동주제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벤메년의 방법을 따라 이행하였다.

5) 예술 문학작품에서의 경험적 진술

이야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 느낌, 감정, 사건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므로 인간경험의 어떤 측면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자기초월 현상을 묘사한 시, 소설, 산문에서 수집하였다. 지금까지 노년에 대한 문헌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산업사회의 진행과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노년소설중 노인문제제기와 고발적인 측면에서의 노인문제소설이 주를 이루다가 성숙으로의 변형을 완성하는 노년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서정자, 1996).

시 부분

정한모의 「원점에 서서」(강신주,1996)는 흠냄새속에서 일생을 살고 다시 흠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에서, 한 바퀴 돌아온 삶의 시간에 서서 인생을 새롭게 관조해 보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원점은 흠이었다

흠냄새였다

중략

흠먼지속에서 소년이 되고

흠바람에 쏠리며

어른이 되었다

중략
석양이 환한
돌아온 원점에서
흙을 밟는다

조병화의 「가을」(강신주, 1996)에서는 삶이라는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허허로운 빈손으로 돌아가려 하는 길, 즉 돌아가야 할 길에 대한 명백한 깨달음, 혹은 그 길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투는 끝났다
이제는 스스로 물러날 뿐이다
중략
가을이 접어들며 흰히 열리는
외길, 이 혼자
이제 전투는 끝났다
돌아갈 뿐이다

정한모의 「마지막 비상」(강신주, 1996)에서 허무의식에 사로잡혀 삶을 회의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자인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순리로 받아들여려는 긍정적 자세를 보여준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은 현실을 직시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아내려는 태도로 이어진다.

중략
한해의 삶을 다하고
떠나는 영혼처럼
영혼이 떠나간 항해처럼
하늘을 향해 지심을 향해
혼신의 힘으로
마지막 비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상의 「老境」(강신주, 1996)에서 노인은 삶의 현장에서 물러난 존재이지만 쓸모없이 버려지는 땅과 같은 황무지가 아니다 “신령한 새싹을 가꾸는 새 밭”이다. 삶의 온갖 고뇌와 젊음의 열기가 여과되어 오히려 평정해진 마음밭에 새로운 삶의 시간을 가꿀 수 있는 때가 바로 노년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삶의 완성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
계절마다 피고 스러지던
무상한 꿈에서 깨어나

죽음을 넘어 피안에다 피울
찬란하고도 불멸하는 꿈을 껴안고
백금같이 빛나는 노년을 살자

또한 구상의 「모과 옹두리에도 사연이」(강신주, 1996)에서는 욕망과 갈등과 허욕을 이기지 못하던 젊은 시절, 그 비련내나던 젊음의 때가 지나 이제 세상의 온갖 파도로부터 멀찍히 밀려나 있음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남은 날들을 절대자의 이끄심에 따라 새롭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다.

바닷가의 조개껍질처럼
비련내나는 욕신과는 헤어지고
세상파도에서 밀려나
중략
모험과 착오의 연속
나의 심신의 발자취는
모과 옹두리처럼 사연투성이다
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기로
지나온 길이나 매양이지만
오직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김남조의 「안식」(김유선, 1996)에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휴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죽음을 통해 욕망도 이제는 검화와 속죄의 이미지인 옥양목 흰빛으로 변환되고 있다 조용히 침잠하는 내면 깊이의 종교적 초월의 세계를 견지한다

이제 그는 쉰다
중략
그가 보던 것
간절히 바라보고
그가 만지던 것
오래 오래 어루만지는 사이
막힘없이 흐르는 시간
가슴안의 구멍으로
술술 빠져나가고
머리속의 봄비는 피도
옥양목 흰빛으로
살살 새어나가누나

모운숙의 「喪失」(김유선, 1996)에서는 살아온 삶에 대한 재인식을 하는 의미에서 과거 시간의 욕망이나 꿈

마저도 거대한 자연의 순환속에 순응하는 과거시간과의 화해를 통해 초월의지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된다.

중략

생은 주검마저 건디며 사는 것
달빛 무늬로 이루어진
어느밤 가슴과 가슴에서 밋어진 일도
지금은 모닥불 밑에 눈감는
가라앉은 재의 고요
없었다 찾았다 다시 잃은
가슴은 가슴위로 장미를 피우다
그 장미 바람속에 이루어 가는 것을

지금까지 노년기 의식에 관련된 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합일과 긍정성으로 나타나고 생리적인 하강의 포물선과는 달리 수평의 선을 형성하는 평안의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다.

소설부분

윤대녕의 「새무덤」(서정자, 1996)의 주인공은 예순둘에 이르러서 아버지가 되뇌이던 무유(無有), 유명(幽冥)의 삶과 뜻을 이해한다. 아버지의 묘자리는 평생 날개를 달고 초월 비상을 꿈꾸었던 아버지의 무유, 유명한 도달지점이었다. 나이가 들어 노화하면서 점차로 초월의 경지에 들어 죽음마저도 초월하고 있다

중략

한테 그게 순리가 아녘던지 너도 판길로 가고 예비도 세상을 두어 바퀴 돌아야 할거란 생각이 들더구나...하지만 이젠 다 돈듯하지? 육신의 옷이란 것도 낡을대로 낡으면 그만 벗어버려야 하는게야

즉 노년은 쇠퇴와 사멸의 무가치한 시기가 아니라 존재 탐구의 완성을 이루는 성숙의 시기인 것이다

손영목의 「세월의 더께」(서정자, 1996)에서 나오는 시어머니는 담담하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

“ 간썸보살. 모든기 부처님 뜻이다. ..그러이 위에서 살피사 베풀어 주시는 대로 우짜든지 그대로 따라야 하니라. 억지로 해서 되는 일 없다”

산 문

시몬느 드 보브아르의 「노년」(홍상희, 박혜영역, 1994)에서 보면 프루스트는 “모든 현실중에서 순수하게 추상적인 개념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현실은 노년기일 것

이다”라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독일의 야콥 그림은 “노년은 단순히 활력의 쇠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노년 고유의 법과 조건에 따라 피어오르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평화와 고요의 시기이다”라고 결론지어 말했다. 즉 “개인이 세상과 맺는 관계의 또 다른 균형상태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장하고 있다.

“철학자들, 수필가들은 노년이 이루어 온 경험을 찬양했다. 노년은 이중적 의미에서 삶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노년은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년은 인생 최고의 성취이다, 연륜을 쌓아온자는 누구나 살아있는 자들 중 최상의 인간이다. 어떻게 보면 존재의 농축과도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노인을 “ 모든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한 노인, 신선”같은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으며 모든 세상사에서 초월할 수 있는 존재로서 견지해볼 수 있다.

6) 현상학적 문헌참고

노인의 자기초월과 관련된 현상학적 문헌 참고에서는 연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쓰여진 것이 있는 가를 조사한다. 문헌들은 연구 현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문헌에서 제시된 노인들의 자기초월 현상은 노화과정중에 성숙하여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ndon, Sale, Leal & Pique(1995)은 9명 환자에게 노화 경험을 인터뷰 한 결과 잠재력을 억제하고 강한 생기를 불어넣어 기쁨을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양상을 이끌어 내어 노인들이 노화과정중에 자기초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Mitchell(1990)은 75세 이상의 노인 10명의 삶의 의미를 확인한 결과 현재를 초월한 평안한 인생향로를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Futrell, Wondolowski & Mitchell(1993)은 노인들의 노화현상과정에서 성숙으로 향한 변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Wondolowski & Davis(1988)는 노화 경험중에 초월적인 인생경험을 통해 창조적인 변형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Haase, Britt, Coward, Leidy & Penn(1992)은 영적인 사고, 수용, 희망, 자기초월 의 동시적 개념분석을 통해 상호관계(interrelationship)가 있는 동시적인 개념(simultaneous concept)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Reed(1991)는 노인의 자기초월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4개의 자기초월의 구조인 생산성(generativity), 내향성(introjectivity), 현실적 통합(temporal integration), 신체 초월(body transcendence)을 확인하였다.

Reker, Peacock & Wong(1987)은 양적연구에서 젊은 노인보다 고령의 노인에서 더 높은 자기초월, 인생의 목적, 자기 죽음에 대한 통합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Klaas(1998)은 75세 이상의 노인 77명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에서 삶의 의미와 영성의 지표인 자기초월은 노인의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Coward(1990)는 5명의 전이된 유방암을 가진 여성의 자기초월 경험의 연구에서 자기 가치의 증가, 인생의 목적,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면에서 자기초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자기초월은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돕는 것을 허용하고 변할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Coward(1991)는 107명의 전이된 유방암을 가진 여성의 자기초월, 정서적 안녕, 질병과 관련된 불편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초월은 정서적 안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Chinen(1986)은 노년기 초월의 형태를 종교적 초월, 사회적 초월, 심리적 초월인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즉 현세를 초월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수용하고 천국을 수용하며 신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인간관계에서 욕심을 버리고 정서적인 평안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Reed(1989)의 노인의 정신적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체초월, 지혜의 전달양상으로 발달하는데 이러한 발달개념은 오래된 자원을 계속적으로 교환하는 과정으로 어떤 행위, 기술, 관점이 변화된 인생의 맥락처럼 변화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Dixon & Dixon(1984)는 건강과 생존능력에 대한 진화론적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인간의 생활 양식 결정인자로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활동과 변화에의 적응양상인 융통성, 그리고 외적인 상황과 내적감정의 균형을 이루는 통합성, 인간이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초월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전 생애발달 이론(life span development)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자신을 넘어 개인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존재(more-being)하기 위해서 자기초월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자기 초월은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발달 전환측면에서 의미있는 개념임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노인들에서 자기초월 과정은 인생의 마지막의 삶을 포괄적으로 성숙한 삶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헌에서 나타난 노인의 자기초월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지만 노인의 발달과정인 통합차원의 연구와 발달 지향적인 방향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이영희, 1993, 김순이, 1996) 김순이(1998)의 노화 체험에 관한 연구에서도 한국노인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적응양상 형성과 반성적으로 자기 의식을 발전시키고 창조적으로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인생의 마지막 삶을 발전적인 측면으로 전환하려는 초월 양상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이 단계는 주제 분석을 하는 것과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의 주제 분석은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여러번 읽으면서 연구자는 노인과 면담한 생활세계에서 노인의 자기초월 현상을 나타내는 주제양상을 분리해 냈다

본 연구에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을 통하여 본질적인 주제 분석을 한 결과 노인들이 체험한 자기초월 현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본질적인 주제

늡음을 자연현상으로 수용하기

자녀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하기

이웃동년배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하기

침묵으로서 현실상황을 관망하기

참음으로 내적인 통합을 형성하기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과 타협하기

생의 마무리인 죽음을 현실화하기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을 내려놓기

인간한계의 확인과 신께 의지하기

늡음을 자연현상으로 수용하기

연구 참여자에게서 나타난 주제는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없지만 외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자신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거시기를 해야 되지 뭐, 심부동이며, 몸은 같지 않아, 늙어 간다는 말이지, 쇠약해 진단 말이며 매년 꽃은 똑같은게 피잖아? 사람은 같지 않다 말이며.

늙으면 자연히 변화하는 것 아니며, 늙으면 자연히 변한다고, 늙으면 가게 되어있는 거고 가기전에는 변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현상인걸

자녀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기

노인들의 자녀에 대한 마음은 그지 없이 받아들이고 맞춰주고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자녀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하고 있으며 자신보다도 가정의 안녕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서로가 그래도 어느정도 마음이 맞아야지 맞춰 나가야 사는 거지, 안 맞추니까 힘들어 서로 힘들다고

부모가 잘해야 할 것 아니며,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도 잘 해야지, 그 아들도 잘 하지,

결혼해 가지고 시부모 모실려면 어려움이 여간 많겠어 그래니깐 나도 잘해야지. 그냥 무슨 내 고집만 부리고 너는 내 하라는 대로 혀, 그런걸 머리속에서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

내가 더 살아서 자식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런생각 뭐 여러가지여

인제 지금 와서는 더 잘해야 된다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조심하지 거실에서 텔레비도 같이 보다 가두 내가 있으므로서 머느리가 부자유스럽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 내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 나이 먹으면

이웃동년배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하기

노인들은 동년배노인들끼리 만나면서 맺힌 것을 풀고 풀어주고 하는 주고 받는 삶을 통하여 남아있는인생을 해로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같은 또래들 끼리 만나니깐 말이 많아지지요 그럼 하소연 할 때가 여기 밖에 없거든 그러니깐 우리가 무슨

애길하면 다 그냥 동조하는 거지, 공감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구 나는 어땠는데 나는 어땠는데...

여기에서 푸념도하고 잘못한다고 그렇지만

배웠다고 유세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저 알아도 모르는척하고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지내는게 제일이죠

애로가 있을 땐 막 돌아댕겨, 사망에 친구들이나 만나 보러 대니구

침묵으로 현실상황을 관망하기

노인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혈기를 부리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문제에 대해 관망하고 속으로 삭이면서 초연해지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안에 갈등이 오면 침묵이라니까

그전 마냥 성질내고 뭐하는거 그런거 없고 침묵으로 일관해 가지고 그런걸 다 극복하는거지

침묵으로 일관해 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흐르면 그걸로써 극복하고 초월하는 거지

침묵으로 내마음을 스스로 수양을 하는거여

참음으로 내적인 통합성을 이루기

노인들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바로 역정을 내지않고 참고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내면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 싫다는 게 뭐여? 내 눈이 거실리게 뵈려면 보기 싫다는 거 아니여? 그러면 고 때만 참으면 아무 상관없어

참다보면 힘드나 어찌나, 그렇게 살으니께, 참으면 더,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을 했다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많이 나와

자기가 이해하고 참으면 되는 거지 뭐

사람이 살으려면 좋은 말도 있고 나쁜말도 있고 그렇지, 그게 뭐 언제든지 좋은 일만 있어도? 그래니께 참는

거여, 참으면 그 사람도 내내 참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 그 거 다 따지고 하면 며느리하고 싸움도 하고 뭐 별짓다 하지

그렇게 사람은 참아야 되는겨, 성질나는데로 성질내고 하면 안되지

상대방이 내 심적을 자극을 두면, 예전 같으면 막 하는데, 자극을 줘도 이해성이 되고 내가 이해하고 참아야 지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많이 들지

할 말이 있지만, 아서라 참아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고 성질이 가라앉으면은...

인제 앞 뒤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요, 젊었을 때는 혈기로서 말도 막 하는 수가 있지만은 나이 먹으면 말을 삼가지요, 그리고 인제 성질도 그전 성질과 확 달라지지요, 그러니깐 말도 삼가해지고 성질도 많이 죽이고, 가 급적이면 언성도 안 높이고 융화적으로 나갈라 하는 ..

내가 참으면 좋다고 만사가 편하다고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과 타협하기

노인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내면의 소리를 잠잠케하면서 타협하는 양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게 불만이고 뭐 슬프고 그런게 있지만은 내 팔자나 뭐 요것밖엔 모든게 다 내 운명이기뵈, 누구 원망안하고 그렇게 산다네 이것 뿐이나.

서로가 그래도 어느정도 마음이 맞아야지 맞춰 나가야 사는 거지, 안 맞추니까 힘들어 서로 힘들다고

그래서 늙으면 피차간 잘하고 살아야지, 늙어가지고 소리질르고 , 팔 걷어 부치고 살으면은 그게 인간이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디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인제 다 늙었는데 미래 가질 것도 없고 그양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기대했던게 수포로 돌아가고 말고 그 저 내 , 그저 울타리다, 주위에서 울타리,

나이가 75세가 넘으니까 그런 주장, 그런 용기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거 해봤자 나이 먹으니까 소원이 없다. 인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포자기하는 거여

나이를 먹으니까 친구도 하나 둘다 갔고 다정한 친구 없거든, 다 하나 들씩 떠났단 말이여, 누구하고 하소연할데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지여.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다 늙었구나 이 생각 뿐이지 나이 먹으니까 모든 기능이 이렇게 쇠퇴했다. 쇠퇴했다는 걸로 내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걸로 끝나야지. 뭐. 몸이 늙어서 그런걸 욕망을 써봤자 소용이 없잖아....근력이 떨어지니깐 용같은 것 써 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생의 마무리인 죽음을 현실화하기

노인들은 어떻게 생을 마무리 할 것인가와 죽음을 가아갈 길로서 받아들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가 이제 나이 요만치 먹어서 아픈데 많고 그러니깐 더 살어 무엇하랴, 이런 생각이 불쑥, 불쑥 많이 든다고...

죽음을 우리가 목상하는 거다. 아, 죽음을 나는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만약에 암선고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내게도 얼마 안 있어 그렇게 닦치지 않나? 죽음을 자꾸 목상하게 되지요

죽을 적에는 좀 아무 탈이 없고 그냥 자는 듯이 죽는게 행복이다하는 생각으로 살어 그런생각으로 살어, 지 급와서 내가 뭐를 하겠어

왜 이렇게 안죽나, 나이가 저저 한 70됐을 때는 그래도 다른 사람 한 80돼는디, 80을 살아야지 했더니, 인제 70넘어 80이여, 뭐 무슨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어도

단지 잘 걸어댕기고, 저녁 잘 먹고 밤에 자다가 슬그머니 죽는게 오복중에 하나라

한사람 한사람 자꾸 죽어서 지나라로 가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을 놓아버리기

노인들은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 도전하기 보다는 생의 끝에 서서 삶을 지탱시켜온 욕망을 놓아버리고 잠잠하게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가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전같으면 내가 좀 희망을 걸고 사는데, 나 이제 80이 다 됐으니까 뭐 희망이 있어?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없어, 뭐 무덤덤하게 살아요, 뭐 생각없이

나이가 75세가 넘으니 용기도 없어지고 소원이 없다.

그냥 세상사는 거지, 뭐 좋은지도 모르고 뭐가 나쁜건지 모르고 한 70대, 72살 달라들으니까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

욕심도 없어지고,

인간관계의 확인과 신께 의지하기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은 한치를 못 내다보는 답답하고 안치를 못보는 인간인데 서로가 말다툼없이 무난하게 사는데 하루하루....그것뿐이지

하나님 한테 의지하게 되고 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거 주님만 없었으면 어디다가 어떻게 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어

그저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고

되는대로 뭐가 뻔길 수 뻔길 수밖에 없지

8) 현상학적 해석학적 글 쓰기

연구자는 자료로부터 주제를 분리하고 생활세계의 경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 면담을 세심하게 한 후 옮겨 썼다.

노인들은 늙어가고 힘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허약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초월해 가면서 재확립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삶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고 미래는 더 이상 새로운 약속으로 부풀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미래를 살아야만 하는

유한한 크기에 맞춰 노인은 스스로를 조절하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된 부정적인 사고들은 노인에 대한 일부분만을 보게된 결과이며 노인과 노화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간의 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볼 때 노인의 자기초월 현상은 노인들이 살아가면서 좀더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이루려는 보편적이며 개인적인 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노인들이 체험하고 있는 자기초월 현상에 대한 체험연구는 연구자에게 노인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이해의 전환점을 마련하여 주었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늙음을 자연현상으로 수용하고 삶의 중심에서 물러나서 자녀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려고 하고 있으며 이웃동년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자신중심에서 이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려는 폭넓은 차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그 문제에 직면하여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현실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여 내면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사고로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우리의 노인들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수용하면서 타협하고 있으며 생의 마무리인 단계인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수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삶의 근간이 되는 욕망의 짐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손안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無有의 정신으로 하루하루 존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인간관계의 확인과 더불어 신에게 자신을 의지하고픈 죽음 후에 오는 피안의 세계를 신에게 맡기는 초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초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노인들은 모든 상황을 수용하며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새로운 양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즉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참음으로 견디며 관망하며 바라보고 통합하므로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자신의 욕망을 놓아버리고 초연한 자세로 임하며 신에게로 의지하는 자기초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여러 문헌에게 제시된 것같이 내향성의 지향과 자신을 억제하고 성숙으로의 변형, 자신을 넘어서는 맥락에서 같은 맥락의 초월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이러한 자기초월 양상으로 현실을 긍정적으로 통합하는 차원에서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바

라볼 수 있어야 하며 노인도 노인 나름대로의 마지막 남은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III. 결론 및 제언

노인들의 자기 초월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벤메논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4 단계의 연구과정인 체험의 본질에 집중, 실존적 조사, 현상학적 반성과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8명의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2차에 걸쳐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시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들이 체험한 본질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늙음을 자연현상으로 수용하기, 자녀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하기, 이웃·동년배와의 원만한 관계유지하기, 침묵으로서 현실상황을 관망하기, 참음으로 내적인 통합을 형성하기,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과 타협하기, 생의 마무리인 죽음을 현실화하기, 삶의 근간이 되는 짐을 내려 놓기, 인간한계의 확인과 신께 의지하기이다.

이러한 양상을 볼 때 노인의 자기초월현상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미래에 대해 허무맹랑한 욕망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를 조절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을 초월하면서 여생을 이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노인이 자기초월하는 현상이 노인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노인사례 연구등을 통해 나타난 자기초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다양한 환경(병원, 양노원)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기초월현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신주 (1996). 노년기 시의 특성연구. 서정자외 11인 (편집),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서울 : 백남문화사.
 강민수, 고영근, 임홍빈, 이승재 (1993).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김순이 (1996). 한국노인의 건강행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김순이 (1998). 한국노인의 노화체험. 성인간호학회지, 10(2), 234-244.
 김익달 (1973). 철학대사전. 학원사.
 김유선 (1996). 현재 여성시에 나타난 노년의식. 서정자 등 11인(편집),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서울: 백남문화사.
 남영신 (1997). 국어사전. 성안당.
 서정자 (1996). 하강과 상승. 서정자등 11인 (편집),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서울 : 백남출판사.
 신경림, 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서울 : 동녘.
 이영희 (1993). 노인으로서 전환양상-문화기술적 연구 방법 적용. 기독교병원 간호전문대논문집.
 최영희 (1989). 노인의 사회심리적 발달과업. 대한간호, 28(1), 11-18.
 홍성희, 박혜영 옮김 (1994). 시몬느 드 보브아르 지음. 노년. 서울: 책세상.
 Chinen, A. B. (1986). Elder tales revisited : forms of transcendence in later life. The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18(2), 171-192.
 Coward, D. D. (1990). The lived experience of Self-Transcendence in woman with Advanced breast cancer. NSQ, 3(4), 162-9.
 Coward, D. D. (1991). Self-Transcendence and emotional well-being in woman with breast cancer. Oncology Nursing Forum, 18(5), 857-63.
 Dixon, J. K. & Dixon, J. P. (1984). An Evolutionary based model of Health and Viability. ANS, 6(3), 1-18.
 Futrell, M., Wondolowski, C. & Mitchell, G. J. (1993). Aging in the oldest old living in Scotland : A Phenomenological study. NSQ, 6(4), 189-194.
 Haase, J. E., Britt, T., Coward, D. D., leidy, N. K., & Penn, P. E. (1992). Simultaneous concept analysis of Spiritual perspective, Hope, Acceptance and Self-transcendence. Image-The J. of Nursing Scholarship, 24(2),

141-7.

- Klaas, D. (1998). Testing Two elements of spirituality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elders. Int. J. Psychiatr. Nurs. Res., 4(2), 452-462.
- Mitchell, G. J. (1990). The lived experience of Taking life Day-by-Day in later life: Research guided by parse's Emergent method. NSQ, 3(1), 29-36.
- Reed, P. G. (1989). Implications of the life-span developmental framework for well-being in adulthood and aging, ANS, 6, 18-25.
- Reed, P. G. (1991). Self-Transcendence and mental health in oldest-old adults. NR, 40(1), 5-11.
- Rendon, D. C., Sales, R., Leal, I., & Pique, J. (1995). The lived experience of Aging in community-dwelling elders in valencia, Spain : A Penomenological study. NSQ, 8(4), 152-157.
- Reker, G. T., Reacock, E. J. & Wong, P. T. (1987). Meaning and Purpose in life and well-being : A life-span perspective. J. of Gerontology, 42, 44-49.
- Wondolowski, C., & Davis, D. K. (1988). The lived experience of Aging in the oldest old : A Phenomenological study. The American J. of Psychoanalysis, 48(3), 261-270.

- Abstract -

Key concept : Self-transcendence experience

The Lived Experience of Self-Transcendence of Elders

*Kim, Soon Yi**

This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used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discover meaning in an self-transcendence experience.

The ultimate aim of the inquiry was to discover the essence of self-transcendence experience and to promote understanding.

The study used van Manen's Methodology of phenmonological research.

Multiple strategies for data collecting were utilized : in depth face-to-face interview and analysis of elders' literature.

The following themes of experience emerged :

Accepting becoming older as a natural phenomenon, transferring to one's own sons' and daughters' oriented life. Maintaining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neighbors and peer, observing real situations with silence, forming internal integrity with perseverance, compromising own's real situation, actualizing one's death, giving up roots of life, depending on God and conforming to human limitation.

From this study essential themes for understanding self-transcendence experience and needs for continuing inquiry were identified.

* Dept. of Nursing, Hyecheon College